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유·무념 대조 체험수기

“나는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작성자 성명	조	소속 : 원광여고	학번 : /
--------	---	-----------	--------

처음 원여고에 들어와서 받게된 귀공주 노트는 그리 달갑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원여중을 다녀서
 때문에 이미 귀공주 “3년차”였기 때문에 막상 3년 더 하라고 하니 막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의견은 원여중을 나온 친구들과 똑같은 의견이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귀공주 이야기를 꺼내자
 “차라리 귀공주 노트 처분할바에 그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거나 “아차피 안쓸거라서 상관 없어”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도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이려던 참인데, 나에게 ‘인성부장’
 미라는 책임이 생겨났다. 봉사동아리에 떨어졌던 나는 어떻게든 봉사시간을 채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성부장이라는것을 하면 시간을 준다고 하는것이다? 이 기회를 불철서라 인성부장이 뭐라도 할려고
 선정을 하고 결국엔 인성부장이 되었다. 귀공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너가 뭐데 인성부장이야?”라고 장난을 매우 많이 쳤다. 원여중때도 귀공주 노트를 잘 안쓴 내가
 뭘 하겠냐는 것이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던 친구들이 좀 마웠지만, 지금은 매우 고맙게 따름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듣고나서 나는 인성부장을 열심히 해내겠다고 다짐하였고 귀공주 노트도 더
 잘 쓰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내가 인성부장이 되고 난 전과 후의 모습이 차이가
 없을줄 알았다. 그저 한 가지 귀공주 노트를 꾸준히 써보자라는 다짐 하나만 하였을 뿐인데 어쨌든 나는 생활을
 꾸준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앞서~~ 내가 어떻게 귀공주를 활용하여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싶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정말 꾸준히 귀공주를 작성하였다. 주말은 물론이고 수련회를 갔을 때에도 귀공주를 못써
 어찌지 하다가 결국 수련회가 끝나고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안에 들어 귀공주를 채게나갔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화를 느끼게된 변화가 있는데, 1~2분씩 자각하는 횟수가 줄었다. 이제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설명해보자면, 나는 원래 시간개념이 없어서 뭘 시간을 잘못한 적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면
 귀공주 방송시간에 귀공주를 못쓰고 다른 준비들만 하고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귀공주 방송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귀공주를 하는것은 귀공주가 오히려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차라리 학교에 일찍 와서 귀공주를 하고있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귀공주도 재미있고 자각도 안하게되는 일석이조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귀공주는 무언가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꾸준한 사람은 곧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또 나는 귀공주에 오늘의 할 일을 적어놓는 편이었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적어놓다보니 계획적이게 되고, ~~매일~~ ‘어제는 할 일을 다 해냈네’, ‘어제는 할 일을 다 못 끝냈네’
 하면서 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서 매우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뒷면 →

작성자 성명	조	소속 : 원광여고	학번 : 1
<p>두번째로는 12세목 지키기이다. 월 말이 되면, 12세목의 (대별동라미) 개수를 시키는데, 두 달쯤 지나니까 매달 안지켰던 세목만 계속 안지켜서 개수가 적고, 지켰던것만 계속 지켜서 개수가 많은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세목은 잘 유념하고 있으니 저 세목도 유념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 세목은 '큰 꿈. 강한 의지 갖기'와 '배려. 나눔 실천하기'였는데 전자는 미술 교사가 꿈인 나에게 맞게 하루에 한장 그림그리기, 하루에 한시간 이상 공부하러는 계획을 세워 매일 유념하여 세목을 잘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후자는 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기다지 잘 못 포은것 같아, 무엇^일 부탁하면 Yes!라고 대답하는 Yes맨이 되어보려고 생각하여 배려와 나눔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고,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귀공주덕에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덕에 더 확실한 자아성찰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p> <p>세번째자료는 개인 유념과 학급유념 만들고 지키는데, 개인에 맞는, 학급에 맞는 유념을 만들면서 개인과 학급이 동시에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만든 학급유념인 '욕,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는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대화하다가 무뎠고 욕을 해버렸을 때 "네 학급유념 어겼어?"라고 장난으로나마 학급유념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다지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유념을 만들고 지키는 활동을 통해 좀 더 자율적인 사람이 될것 같다. 이 점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많이 느끼는데, 자율인 만큼 야자 1, 2교시를 내가 스스로 정하는데, 그때마다 귀공주를 보면서 계획할 때가 많았다. 느끼는 부분이다.</p> <p>이렇게 중학교 3년동안 알지 못했던 귀공주 사용방법을 터득하고나니 이제는 스스로 명상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특히 '마음 바라보기'라는 세목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목에 (대별동라미)가 들어갈 때마다 '음, 나는 마음량을 제대로 하였군!'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 반동안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친구들과 함께 귀공주 노트나 활동들을 열심히 할 것이다. 미래에 귀공주 6년차라 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귀공주</p>			